

다해·제2307호  
주님 공현 대축일  
2025년 1월 5일

# 춘천주보



🎨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동방 박사들의 경배〉  
1753년경, 캔버스에 유채,  
알테 피나코테크, 독일

## 📖 목 차

- 02 말씀의 향기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 03 사제 단상  
진정한 삶, 참 행복
-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sup>40</sup>
- 05 열린 마당  
신간 도서 소개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 이사 60,1-6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  
○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  
○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  
○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

**제2독서** 에페 3,2.3 나.5-6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 마태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세계 곳곳에서 환경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요셉 신부  
홍천 본당 보좌

##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오**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도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이거나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종종 그렇습니다. 잠깐 시간과 거리가 늘어나긴 하지만 내비게이션은 친절히 목적지를 향한 다른 경로를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복음을 묵상하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방박사와 헤로데의 만남은 꼭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빛을 따라 먼 거리를 걸어온 동방박사지만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구원자이신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헤로데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맞게 찾아온 것 같은데,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인가?’ 그곳에 있던 헤로데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방박사들처럼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운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그들을 비추고 있는 별빛입니다. 별빛은 목적지를 알고 있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빛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빛을 따라간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더없이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나선 이 길 위에서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거짓된 빛들이 나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의 시야는 좁아지고 삶의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속 주님이 주시는 별빛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내가 헤매고 있는 그곳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비춰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경로를 이탈할 수 있지만 목적지를 향한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빛을 끝까지 따라간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따라 걸으며 반드시 그분을 만나리라 하는 희망 속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천 년 전 시작된 빛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마태 2,10)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탄원과 고통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 진정한 삶, 참 행복



**넷** 플릭스에서 얼마 전 유행했던 “흑백요리사”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80명의 흑수저 셰프(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요리사) 중에 오직 20명만이 백수저 셰프(이름이 알려져 돈 많고 잘 사는 요리사)와 대결을 벌인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흑백으로 나누는 것이 이분법적이면서도 세속적인 논리의 이야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본당 청년이 너무 재미있게 봤다기에 몇 가지 에피소드를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우둔살 대결’ 이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식 전문가 ‘이영숙’ 요리사와 젊은 나이의 ‘장사 천재 조사장’ 이라는 요리사가 우둔살 요리를 가지고 경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장’ 이라는 요리사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요리사로서 언뜻 보기에 도 화려하고 먹거리가 한가득한 전립투골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숙’ 요리사는 소박한 곰탕 한 그릇을 내놓았습니다. 하나의 재료로 겨루는 맥시멀리즘(최대주의)과 미니멀리즘(최소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음식의 맛만으로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은 소박한 요리에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그 후 심사위원과 요리사들은 “참 덜어냄의 미학” 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만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우러러보는 멋진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소박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진솔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 깊은 맛을 냅니다. 이 에피소드는 경제 논리 속에서 세상에 물들어 가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는 듯했습니다.

‘진정 우리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 마음을 아름답게 채우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9)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미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쉽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서는 언제나 지혜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청하였듯 여러분 모두도 세상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하느님 안에서 지혜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 배출 바르게 실천하기

김태 <명례방 집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40

## 평신도의 소명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고유한 점 중 하나는 그 시작이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것인지 해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신자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교포 사목을 위한 사목자의 파견을 요청하는 일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품성사를 통해 성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봉헌하겠다고 서원한 수도자들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7항). 모두가 함께 걷는 교회,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려 노력하는 오늘날에는 평신도의 역할이 특히 강조됩니다. **평신도들은 자기의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는 가운데 교회와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 세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특히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898항 참조). 교회 공동체에서 평신도들의 활동은 매우 필요하며 이 활동 없이는 사목자들의 사도직은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00항). 평신도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제직.** 평신도들이 자신의 모든 일, 곧 기도, 사도직 활동(교회 내에서의 다양한 단체 활동 등),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어려움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그들은 하느님께서 받으실 영적인 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01항).

**예언직.**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치는 일은 성직자들만의 임무가 아니라 모든 신자의 일이며, 자신의 삶을 통한 **생활의 증거와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04~905항).

**왕직.**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어 제자들에게 왕다운 자유의 선물을 주셨으며 “극기와 거룩한 생활로 죄의 나라를 완전히 쳐 이기게 하셨습니다(교회 현장 36항).” **극기와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들이며 왕이라고 불릴 만합니다. 평신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가는 세상의 제도들과 조건들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목자들의 협력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구별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조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화를 위하여 현세의 어떠한 일이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08~912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369~383쪽, 871~813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택배 주문을 자제하여 과도한 포장 줄이기



## 신간 도서 소개

### 2025 희년 여정 노트



희년의 주제인 '희망'과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자들은 이 글들을 묵상하고,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으며 희망의 순례를 떠날 수 있다. 묵상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일과 드리고 싶은 기도 지향을 적을 수 있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76면 · 6천원 · 가톨릭출판사



### 알고 믿으면 희망이 되는 종말론 이야기

'종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자 명형진 신부는 종말 신앙을 통해 우리가 받은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해 걸어가자고 말한다. 종말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올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편견에서 벗어나,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명형진 지음 · 312면 · 1만7천원 · 성서와함께

### 영원히 머물 것처럼 곧 떠날 것처럼

초대 조선 대목구장 브뤼기에르 주교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국인 프랑스에서 1938년 출간한 전기를 번역한 책이다. 가족에게 보낸 편지들과 그의 여정 속 이야기를 통해, 주교의 신앙과 삶의 희로애락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그가 조선 선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헌신했는지를 보여 준다.



카미유 부르동클 지음 · 256면 · 1만7천원 · 생활성서

### 마리아는 길을 떠나

대림 시기의 주요 복음을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표현들로 풀어낸 묵상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림 시기를 사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는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희망에 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희년에도 신자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에르메스 론키 지음 · 124면 · 1만원 · 바오로딸

### 기도를 그리다



예수회 배영길 신부의 기도 묵상집. 예수님의 강생에서 공생활, 파스카에 이르는 구원의 역사를 주제로 하는 네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 첫머리에 에세이와 함께 그림과 묵상 글,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주님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배영길 지음 · 196면 · 1만9천원 · 성서와함께



### 가톨릭 고전과 함께하는 365 말씀 묵상 달력

가톨릭 고전 도서 12권에서 엄선한 아름다운 문장들을 하루하루 넘겨볼 수 있는 만년 일력이다. 새 신자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한 장씩 달력을 넘기며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챙겨 보자. 일년 뒤, 매일의 말씀으로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일상이 더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느낄 것이다.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384면 · 1만6천원 · 가톨릭출판사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견진성사

서석 본당: 1. 12.(주일) 10:30

사제평의회 · 참사회

1. 14.(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 11.(토) **히지노**

흥기선 신부

백응만 다마스 신부 75주기



생년월일 : 1919.  
서품일 : 1945. 11. 21.  
선 종 : 1950. 01. 05.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본 당 알 림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 · 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임당동 성당

지 오 건 장

주택, 아파트 리모델링  
도배, 장판, 욕실, 주방시공  
건축, 목공 국가자격증 소유  
☎ 010-8480-1789, 010-4075-2166 이보람 가브리엘

중앙산부인과 (속초)

산전진찰, 부인과진료, 골다공증 관리  
국가암건강검진(자궁, 유방암)  
성인 예방접종, 영양수액  
☎ 033-637-9887  
김균하 다미아노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임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 · 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교구 제단체 · 모임 · 미사 · 피정 · 교육

레지아 직속 Co.Cu.단장 간담회 및 월례회의

1. 5.(주일) 11시, 말당회관

사랑의 기쁨 2기 청년 모임

1. 11.(토) 10:30, 교구청

춘천 평협 월례회의

1. 11.(토) 15시, 말당회관

'여정' 예언서 통독피정

2. 1.(토) 10시~2.(주일) 15시, 가톨릭회관  
참가비: 7만원 / 마감: 1. 15.(수) / 대상: 24  
년 '여정' 예언서 강의를 1학기 이상 수료한 자  
☎ 033-240-6020

성령새신 금요기도회

1. 10.(금) 19~23시, 운교동소성당  
강사: 유병수 멜키올(인천교구)  
미사: 19:30 조영수 마태오 신부  
주차: 성당 및 운교노인복지센터 앞  
☎ 010-2962-4051

렉시오 디비나(성독, 거룩한 독서)

1. 14.(화) 10~17시까지, 가톨릭회관  
대상: 한번이라도 렉시오디비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두 초대함  
지도: 김택신 신부 / 미사: 16시  
참가비: 1만원(점심포함)  
☎ 010-9345-5593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1. 18.(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1. 12.(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포콜라레 운동(국제마리아사업회) 생활말씀 모임

춘천 여성: 첫째주(토) 14시 ☎ 010-3377-8066  
강릉 혼성: 첫째주(주일) 16시 ☎ 010-2736-8083  
홍천 혼성: 첫째주(토) 홍천성당 10시 미사 후 ☎ 010-9741-8999 / 학생 및 청소년 ☎ 010-5178-3686

청소년 견진 캠프

1. 9.(목)~12.(주일) 가톨릭회관

신학생 부모 기도 모임

1. 11.(토) 14시, 성소국

1월 카나 혼인 강좌

1. 25.(토) 18:30, 애막골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부활 성당 운영 안내

2025년 1월부터 매주 (월) 휴관합니다.

가톨릭 이주민 센터 미사 안내

베트남어 미사(Vietnamese Mass): 8:30(Sun)  
영어 미사(English Mass): 15:00(Sun)  
장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3길 32

강릉아산병원 원목실

위치: 신관 지하 1층 / 미사: 매 (토) 14시,  
신관 5층 2세미나실 ☎ 033-641-8388

춘천 교정봉사회 봉사자 모집

남사: 매 (목) 15시  
여사: 마지막 (화) 15시  
☎ 033-264-5011 한삶의집

좋은 이웃 상담실 운영 안내

심리, 신앙, 부부, 자녀, 아동 상담 실시  
월~금(10~17시)  
☎ 033-253-6006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2025년, 을사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우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인준시설

일반알림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심
대상: 춘천시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춘천시립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국민기초생활 수급 어르신, 일상 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
☎ 033-262-0303

희망의 일터-회사 서류 봉투 제작

편지 봉투, 각대 봉투, 카드 봉투 인쇄 제작합니다.(검정, 군청 단색) 춘천시 영서로 1925-23
☎ 033-261-0199 문의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분야: 시간제 청소년 동반자
서류: 1. 20.(월) 18시까지/면접: 1. 22.(수) 14시
상세내용 홈페이지(www.8181388.co.kr)
☎ 033-818-1389

꽃동네 은총의집 직원 모집

생활지도원 1명, 언어 재활사 1명, 교대인력
생활지도원 1명 ☎ 031-589-0196 문의

춘천시립요양원 입소자 및 직원 모집

입소자 (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 급여대상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033-261-9658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연중피정 접수중)
한라산산행: 1. 20~22./2. 7~9./2. 21~23./2. 25~27.
성지순례: 3. 13~16./3. 23~26./4. 5~8./4. 29~5. 2.
☎ 02-773-1455, 064-796-4182 접수

예수회센터 봄학기 동영상 강좌/3월 개강

-마태오의예수 이야기: 토라, 제국, 하나님의 나라: 박상훈 신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3: 송봉모 신부
-꿈-하나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신곡>지옥편: 배신과 우정: 김산춘 신부
-구약성경 아카데미: 창세기 해설: 주원준 박사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 번째 길: 최지원 수녀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 02-3276-7733 신청 center.jesuit.kr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Background image of a dog)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과 동반가족의 위기상황 대처 및 지원
상담·법률·의료·통번역·심리치료지원, 보호
시설연계 / 평일 (월)~(금) 9~18시
☎ 033-244-1366, 9544

직업재활시설 밀알일터 직업적응 훈련생 모집

대상: 등록장애인 / 기간: 연중수시 / 만18세이상 / 인원 00명 ☎ 033-261-7112

보금자리 입소 청소년 모집

입소자: 가정 돌봄이 어려운 남자 청소년
이용대상: 9~24세
보호기간: 3년 이내 중장기 보호(1년 연장 가능)
☎ 033-244-5118

2025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신학 전반 26과목 공부
접수: 11. 11.(월)~25. 2. 14.(금)
☎ 02-745-8339 ci.catholic.ac.kr

2025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2025. 2. 7.(금)~9.(주일)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 마감: 1. 31.(금)
☎ 010-6221-3520 문의

라파엘여행사 성지순례 02-778-8565

3. 9. 포르투갈 일주 9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3. 14. 시칠리아 몰타 10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5. 13. 이태리(대히년) 11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5. 12. 산티아고순례길 13일 (479만원)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2일>

25년 3. 30. / 599만원(+2100유로)예정
루르드, 파티마 순례 포함/catravel.co.kr
☎ 070-4086-0207 가톨릭 트래블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산행: 1. 23~25./2. 8~10./2. 14~16./2. 22~24.
추라도포함: 3. 1~4./3. 9~12./4. 2~4./4. 12~15.
☎ 02-773-1463, 064-756-6009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춘천 모든 골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이은경 테오도라

구름다리 주유소

후평동 금호 빌리지 옆
춘천 전지역 신속배달(인접지역도 가능) / 난방등유, 경유, 면세유
☎ 010-8945-1462
엄재철 미카엘·지은희 마리아콜베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전정구 베드로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켈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